상쾌한 아침 여는 판사 DJ의 '진솔한 수다'

■광주지법 아침방송 2대 DJ 김 용 찬 판사

소소한 일상·행사·칭찬릴레이 등 매주 화요일 아침 30분간 진행

"칭찬하고 싶은 직원들이 너무 많은 데 딱 한 명을 선택해야 하니 이것도 쉽지 않네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주는 자세가 직원들을 마치 민원들보다 더 만족스럽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기영 실무관을 추천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8시30분이면 법원 청사에 낭랑히 울려퍼지는 멘트와 음악 소개로 청사는 웃음 꽃으로 가득해진다. 매주 한 명씩의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주 한 차례 법원의 웃음 꽃을 피우게 하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방송 진행자인 'DJ(Disk Jockey)' 김용찬(32·제3민사부)판사다.

지난 6월 초대 DJ였던 김영기 판사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신출내기'이지만 중저음의 목소리와 꼼꼼한 준비로 김 판사는 어느덧 법원 안에서 인기 DJ로 통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빨간 운동화' 뒤에는 "2인3각 달리기를 하고 싶다"며 지법 가을 체육대회 일정을 공지하는가 하면 비 오는 날씨를 감안해 부활의 '소나기'를, 15일 생일을 맞는 김관재 지법원장 등을 위해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를 소개하는 선곡 솜씨를 선보였다.

김 판사의 방송 DJ 취임은 전임 DJ가 남자 였고, 지난 2월 함께 발령받은 초임 판사 6명 가운데 김 판사가 '청일점'이라는 것이 계기가 됐다.

우연하게 내심 노리던 자리를 꿰찬 김 판사는 방송 전날 밤 2~3시간을 투자해 A4 용지 3~4장 분량의 대본을 준비하는 열성에다 음향기술을 맡고 있는 박현옥(여·48)주임과의 '찰떡 궁합'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김 판사가 진행하는 화요일은 생일·결혼·출산 등의 직원 소식과 법원 내 가장 인기 있는 칭찬릴레이 코너다. 최근 53번째 칭찬릴레이 주인공을 소개했다.

김 판사는 "법원 방송이지만 DJ 경험을 쌓게 돼 행운으로 생각하고 CD, 격려 메일을 받을 때는 특히 힘이 난다"며 "아침방송이 판사·직원 간 화합과 의사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UNDF 굿윌대사' 샤라포바 내년 러 체르노빌 방문

'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세계랭킹 2위)가 내년 7월께 방사능 유출 사고로 폐허가 된 조국 러시아 체르노빌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14일 전했다.

샤라포바는 올해 2월 임명된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굿윌대사 자격으로 내년 윔블던대회가 끝난 뒤 체르노빌을 찾을 계획이다.

UNDP 굿윌대사는 UNDP의 빈곤퇴치 목표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의 의료, 교육, 인권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하는 친선 사절로 축구스타인 디디에 드로그바, 호나우두, 지단 등이 활동 중이다. 샤라포바는 2월 대사로 임명된 뒤 10만달러를 체르노빌 지역에 기부했다.

샤라포바의 어머니 옐레나는 그를 잉태했을 무렵인 1986년 체르노빌에서 원전사태를 실제 겪었고 벨로루시 고멜로 피신한 뒤 이듬해 시베리아 냐간에서 샤라포바를 낳았다.

방사능 유출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고멜에는 지금도 샤라포바의 조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라포바는 "대사로 수행하는 첫 업무인데 병원 등 어린이 시설을 방문하고 싶다. 1년에 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28일밖에 없어 체르노빌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제한된 게 아쉽다"고 말했다.

광복절에 되찾은 할아버지의 명예

'애국 지사' 한방섭 선생 손자 한정옥씨

"83년 만에 할아버지의 명예를 찾게 돼 감격스럽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할아버지를 대신해 건국훈장을 받게 되는 한정옥(59)씨의 소감은 남다르다.

한씨는 1924년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으다 3년6개월의 옥고를 치른 한방섭(1890~1958) 선생의 손자다.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봐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사실을 숨기셨고, 부친도 징용을 당하셔 병을 앓고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 할아버지의 과거는 아픈 비밀로 남아 자료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의 옥고와 사망으로 많은 독립유공자들의 생활이 여의치 않는 것처럼 한씨도 넉넉지 않은 살림에 과거를 돌아볼 틈이 없었다. 한씨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찾아 드리려고 4년 전부터 두 발로 뛰며 자료를 모았고, 드디어 그 결실을 얻었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독립유공자 중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한씨를 포함해 3명.

1941년 화순에서 항일(抗日) 비밀 결사대에 참여해 1년의 옥고를 치른 서기표(1887~1975)선생의 손자 서상률(54)씨와 능주에서 의병활동을 하다 울분을 느끼고 순국한 임노성(1859~1940)선생의 손녀 임순덕(71)씨가 그 주인공.

"생활에 쫓기어 자랑스러워야 할 과거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서야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할아버지 앞에 떳떳한 손자·손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복싱 한일전' 방송 중계를 위해 해설좌석에 앉은 전 세계복싱평의회(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홍창수와 이명진 캐스터, 조인주 해설위원.(왼쪽부터).

복싱 해설 홍창수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전 세계복싱평의회(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홍창수(33)가 6년 만에 고국의 링으로 돌아왔다. 링 위가 아니라 링 옆 방송해설자석이다.

15일 방송되는 MBC-ESPN의 8·15 특집 한일전 복싱중계 해설을 맡아 13일 서울 용산구 용산아이파크 백화점 4층 이벤트파크 특설링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MBC-ESPN 복싱해설가로 변신한 조인주와 이명진 캐스터 등과 함께 자리에 앉은 홍창수는 링 위에서 보인 자신있는 모습과는 달리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일상적인 회화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지만 TV 카메라 앞에 앉는다는 게 쉬울 리가 없었다.

홍창수는 경기가 끝난 뒤 "복싱용어가 한국 말로 나오지 않아서 고생했다"고 털어놓았다.

美 콩코드시 16일 '권율의 날' 선포

CBS '서바이버' 우승, 영웅으로 인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콩코드시가 8월16일을 '권율의 날'로 선포한다.

콩코드시는 16일 토도스 산토스 플라자에서 열리는 지역축제인 '뮤직 앤 마켓 프로그램'에 지난해 12월 CBS 리얼리티쇼 '서바이버'에서 우승한 권율(32)씨를 초청해 '권율의 날'을 선포한다.

권씨는 5만 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본선에 진출, 3개월간 뉴질랜드 쿡 아일랜드에 옷 2벌과 신발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 생존 게임을 펼쳐 최종 우승해 '대부'라는 칭호를 얻었다.

마크 피터슨 시장은 "그는 시의 영웅"이라며 "자란 곳을 잊지 않고 생각해줘 감사한다"고 '권율의 날' 선포 취지를 밝혔다.

"자료 발굴 최선…역사에 묻히는 유공자 없어야"

문 병 민 광주지방보훈청장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게 나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문병민(52)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제6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포상을 받게 되는 독립운동가 290명 중 80%에 이르는 232명이 자료 수집이 늦어져 뒤늦게 공로를 인정받게 됐는데, 국가에 헌신하고도 자료가 없어서 아직도 역사에 묻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전문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자료를 발굴하고 정보화해 유공자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포상을 받게 되는 광주·전남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9명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년간의 옥고를 치렀던 서기표선생의 유족 등이 62년 만에 포상을 받게 된다.

"선조 분의 업적에 대해 유족분들에게 뒤늦게 연락을 드릴 때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많은 유족분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좀 더 빨리 유공자 자손으로서의 자긍심과 혜택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기도 합니다"

문청장은 노후복지에 초점을 맞춘 보훈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광주·전남지역 340명의 애국지사 중 16명이 생존해 계시는데 모두 80세가 넘은 고령이십니다. 그외의 대상자들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업무 중 노후복지종합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노후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선포한 '보비스'라는 이동보훈복지 브랜드를 활용해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중풍·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보훈가족들을 위해 2008년 광주 보훈병원 인근 부지에 노인요양시설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배두나, 두번째 사진집 '도쿄놀이' 출간

지난해 사진집을 내고 사진작가로 데뷔한 배우 배두나가 1년 만에 두 번째 사진집을 낸다.

배두나는 일본 도쿄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과 에세이를 모은 '두나's 도쿄놀이'를 16일 출간한다. 그는 지난해 8월 런던 여행기인 '두나's 런던놀이'를 선보였다.

2004년 일본 영화 '린다린다린다'의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으는 등 평소 일본에 관심이 많았던 배두나는 지난 겨울 한 달간 도쿄에 머물며 이번 사진집을 준비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강원용 문고' 설치된다

지난해 8월 17일 타계한 강원용(1917~2006) 목사의 생전 애장도서 5천173권이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권경상)에 기증된다.

여해강원용목사기념사업회(이사장 이홍구)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에 '강원용 개인문고'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기념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서관 내 인문과학실과 전시실에서 강 목사의 유품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계 1주기를 맞아 강 목사가 1968년 발간한 수필집 '저 문이 닫히기 전에', '벌판에 세운 십자가' 등에 실린 138편 가운데 33편을 뽑아 새롭게 엮은 '중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현암사 펴냄)가 출간된다.

또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으로 강 목사가 목회활동을 펼쳤던 경동교회를 예술적 공간으로 승화시킨 신세대 행위예술가 이윰(36)의 아트북 '살아 있는 성전'도 10월에 출간된다.

내방

▲손학규씨(전 경기도지사) ▲김동철씨(민주신당 국회의원) ▲김재균씨(전 광주북구청장) ▲하동만씨(전남발전연구원장) ▲이건철씨(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문상필씨(광주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 : // 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 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절제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9월 1일, 8일 오후 2시~5시, 광주대도서관 5층. 음·양택, 수맥, 나경, 지도상명당, 장법요강 등. 문의 011-609-8117, 670-2161

동창·동문회

▲효동 32회 동창회(회장 김성곤) 월례회=16일(목) 오후 8시 화니 콩나물 해장국. 523-2550

▲북성중 제 17회 동창회(회장 유영은) 월례회=17일(금) 오후 7시 일송정. 525-9977

▲북성중 제 16회 동창회(회장 강해룡) 월례회=18일(토) 오후 7시 송원회관. 223-0028

모집

▲광주 금호평생교육관 2007 후반기 문화강좌 수강생모집=8월 28일부터 4개월 과정. 생활예절과 다례·아코디언·바이얼린·노래교실·퀼트·홈패션·국악·요가·모던댄스·라틴댄스·풍수지리·서예반 : 주1회 수강료 3만원, 컴퓨터·영어회화 : 주2회 수강료 5만원. 장애인·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무료. 23일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360-6631~6.

▲광주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인 주간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정신 장애인들에게 조속한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 무료. 정신의료기관에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문의 262-4379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의무트레이너(자원봉사단) 모집=20일까지. 중증 장애인 선수 보조 및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 문의 384-5542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광주인연맺기학교 차량자원활동가 모집=휠체어 이용 장애아동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차량 자원활동가 모집. 문의 010-2323-2688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부음

▲김철중씨 별세 양수(전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씨 부친상=발인 16일(목) 한국병원 장례식장. 019-609-1704, 606-1313

▲김영율씨 별세 옥근(자영업)·진근(한국 교원대 교수)·춘근(보건복지부 한방 정책팀장)씨 부친상 이화범(호남상회 대표)·정부근(자영업)·박학래(㈜SK)·정성균(노동부 포항지청장)·김종석(이노건설 부장)씨 빙부상 이재원(광주MBC 기자)씨 외조부상 =발인 16일(목) 영광군 영광읍 제일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1-352-2300

▲김순심씨 별세 이찬웅(전 외환은행 영업본부장)·찬호(산업은행 시화지점 총괄팀장)·찬현(㈜매산씨엔에프 상무이사)씨 모친상 문장옥(전 교사)·오병인(전남도 교육위원)·배용웅(목포 진고개 약국)·박승옥(㈜골드윈 대표이사)씨 빙모상=발인 16일(목) 강남성모병원 22분향소. 02-590-2697

▲김종태씨 별세 영춘(LG그룹)·영민(목사)·영창(전남지방경찰청 감찰계장)씨 부친상=발인 15일(수) 금호장례식장 201호. 227-4381

▲이주형(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상진미크론분회장)씨 별세 요시미씨 상배=발인 15일(수) 하남성심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954-4444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062) 521-1100